

UNHCR/A.Hollmann

작은 변화를 위하여



유엔 난민 기구
The UN Refugee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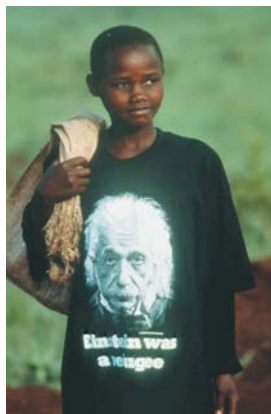


UNHCR의 활동

UNHCR은 난민을 보호합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UNHCR(유엔 난민 기구)은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국제적 보호란, 난민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국적국으로 강제 송환 당하지 않도록 하고, 난민의 신체적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난민 여성과 난민 어린이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합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세가지 해결책은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정착, 그리고 제3국에의 재정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UNHCR

UNHCR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난민문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UNHCR/F.PAGETTI

돌티모르로 귀환하기 위해 멀리 체육관으로 가고 있는 돌티모르인들.

자발적 본국 귀환

박해의 공포가 없어진 본국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간주됩니다.



UNHCR/B.CLARKE

기니에 정착한 라이베리아 난민.

1차 비호국에의 정착 · 현지 정착

처음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에 정착하는 경우로, 1차 비호국은 대체로 난민 발생국의 주변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가 기후가 비슷해 비교적 난민들이 적응하기 쉬운 편입니다.



UNHCR

스위스에 정착한 인도네시아 난민 어린이.

제3국 정착 · 재정착

자발적 본국귀환이나 1차 비호국에서의 현지정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제3국에 정착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UNHCR의 활동

UNHCR은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난민보호



난민이 박해당할 위험이 있는 국적으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국제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난민캠프설치



난민을 받아들인 정부의 협조를 받아 안전한 장소에 난민캠프를 설치합니다. 구하기 쉬운 자재를 이용해 그곳 기후에 적합한 간단한 구조로 짓습니다. 긴급상황시는 비닐 텐트만 세우기도 합니다.

식량배급



하루에 성인 1인당 1900칼로리, 긴급시에는 2300칼로리에 해당하는 음식을 나눠줍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나 임신부에게는 추가로 보충식량을 배급합니다.

물



긴급상황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파거나 가까운 연못 호수에서 물을 수송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최소한 1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위생



물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화장실, 즉 오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것은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건진료



기본 의약품품을 갖춘 진료소와 환자를 진료할 의사,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난민들이 물려올 때는 콜레라, 설사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운송수단



난민이 피난가는 곳은 대부분 국경 근처 지역으로 교통 등 여러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형트럭, 연료, 통신통수단 등이 필요합니다.

생활용품



당장 생활하는데 필요한 냄비, 수저, 물병 등의 생필품을 나눠줍니다. 담요나 꼭 필요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여성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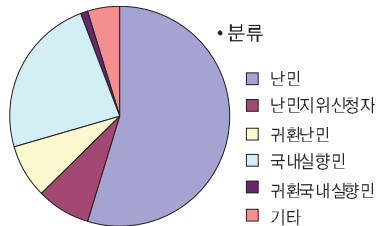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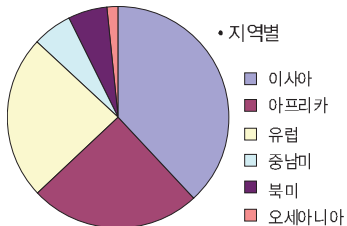
남편을 잃고 남은 가족들과 자녀를 돌봐야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지원합니다.

교육



난민촌에 유치원, 초·중학교를 세워 어린이에게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합니다.

UNHCR의 보호대상자 2004년 1월 현재(약 17백만 여명)



작은 변화를 위하여

유엔 난민 기구의 예산은 95% 이상이 각국 정부, 기업, 개인 후원자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UNHCR의 예산으로 난민 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200원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UNHCR/L. TAYLOR

난민은 우리사회의 문화적 축복과 같은 존재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동안의 프랑스 망명생활을 마치고 작년 1월에 귀국해서 현재 한겨레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의 외무부 산하 난민국에 난민신청을 한 것이 1982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그후 1년만에 난민인정을 받고 프랑스 국민과 거의 같은 사회적 혜택을 누리면서, 즉 투표권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프랑스 국민이 갖는 모든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프랑스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프랑스 사회가 제공해 준 제반 혜택의 덕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난민 지위라는 것이 많은 내면적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 현실 생활에 있어서 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난민들을 단지 경제적 피난민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난민들이 한국 땅에 찾아 온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문화를 서로 교환하고 나누면서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기회를 그들이 가져오는 것인데 그런 점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그들은 불쌍하게 본다든지 이런 시선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문화를 가진 인격체로서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정착 우리나라와 그들의 출신국가를 잇는 멋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함께 동참하고 연대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세화
한겨레신문 편집기획위원

유엔 난민 기구
The UN Refugee Agency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7층 (100-191)
<http://www.unhcr.or.kr>
E-mail : unhcr@unhcr.or.kr